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8. Vol. 13, No. 1, 169 - 183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임수진[†] 최승미 채규만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성신여대 심리학과

본 연구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대처효율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았다. 서울 및 경기도 지역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아동 39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분석한 결과,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과는 정적인 상관관계, 대처효율성과는 부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문제행동 간의 관계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여아에게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이 각각 문제 행동에 미치는 주 효과가 유의미하였고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이 문제행동에 미치는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미하였다. 즉, 여아의 경우 부모 부부갈등에 대한 지각 정도가 높더라도 대처효율성이 높을 경우 문제 행동의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여 대처효율성이 조절변수로 기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에는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있는 가정에서 아동이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문제 행동의 발현을 예측하는 것과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부분적으로 대처효율성의 조절 효과가 관찰되는 바, 아동의 문제 행동을 줄이고 아동이 적응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대처효율성의 증진이 효과적인 개입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부부갈등, 아동의 문제행동, 대처효율성, 조절효과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임수진, 서울시 중구 저동 2가 85번지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임상심리학실, Tel : 02-2270-0068, E-mail : jjin7901@hanmail.net

가정은 인간이 출생하여 양육 받고 가족과 더불어 생활하는 가장 기본적 단위이다. 가정환경은 아동에게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환경으로,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동안 개인의 정신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박수잔, 1997). 부모가 제공하는 가정환경은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데, 불안정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환경은 아동의 발달 문제를 유발시킨다(Emery & O'Leary, 1982). 스트레스가 많은 가정환경이 아동의 발달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가설들은 부부갈등과 이혼, 가족의 경제적 스트레스, 부모의 정신병리 등을 포함하는 여러 영역의 연구들에 의해 지지를 받아왔다(Emery, 1982; Conger et al, 1992; Rutter, 1979; 우진영, 1998에서 재인용). 특히, 부부갈등은 부모-자녀관계(Fauber & Long, 1991), 부모갈등에 대한 아동의 인지적 평가(Gryth & Fincham, 1990), 정서적 안정감(Cummings & Davies, 1994)에 부정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자녀의 적응과 발달을 저해한다.

부부갈등은 '부부가 서로의 대립과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교환하는 관찰 가능한 부정적인 언어적, 비언어적 상호작용'이라고 정의되며 여기에는 가출, 언쟁, 신체적 싸움 등과 같은 다양한 행동전략들이 포함된다(Straus, 1979; 이민식과 오경자, 2000에서 재인용). 부부갈등은 생후 6개월부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과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Cummings, Ballard & El-Sheikh, 1991). 또한 부모간의 갈등으로 인해 아동이 행동적, 정서적 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화목한 가정의 아동에 비해 2-5배가량 높다는 연구결과(Rutter, Yule, Quinton, Rowland, & Berger, 1975;

Richman, Steavenson & Graham, 1982)는 부부갈등 상황이 자녀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부부갈등은 우울, 불안, 위축, 사회적 고립과 같은 내면화 장애(internalizing disorder)와 아동의 공격성, 불복종, 행동문제와 같은 외면화 장애(externalizing disorder)와 관련이 높다(Emery, 1982). Cummings(1994)의 정서적 안정감 가설에 의하면 아동은 부부갈등에 반복 노출되는 과정을 통해 부모갈등에 민감해진 아동의 정서적 불안정성은 증가하고, 이는 아동의 내면화 및 외면화 문제를 초래하게 된다(송은하, 2004). 또한 부부갈등은 자녀의 자아존중감(Slater & Haber, 1984), 사회적 유능성(Emery & O'Leary, 1984) 및 인지적 능력(Long, N., Forehand, R., Fauber, R., & Brody, G., 1987), 학업성취도(Long, Slater, Forehand & Fauber, 1988) 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부갈등이 자녀의 정서 및 행동문제와 직접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부부갈등에 의해 부모-자녀 관계가 영향을 받고 이로 인해 자녀의 정서 및 행동문제가 발생한다는 간접적인 영향을 제기하는 연구들도 있다(Farber & Long, 1991; Fauber, Forehand, Thomas & Wierson, 1990; Vincent, Harris, Plog, 1991; Harold & Conger, 1997). 따라서 부부관계가 좋은 화목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동은 아동기와 청년기에 성공적인 발달과정을 밟음으로서 역량 있는 성인으로 성장하는 반면, 부부불화나 이혼 등을 경험한 아동은 심리적 황폐화와 가출, 비행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을 일으키며 발달과업을 제대로 이행하기 어렵게 된다(현명호와 최문선, 2002).

한편,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는 갈등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부부간 갈등이 존재하더라도 아동에 따라 갈등에 노출되는 정도, 갈등을 지각하는 정도에 차이가 나며, 부모의 결혼관계를 평가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자녀가 지각한 부부 갈등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Jenkins & Buccioni, 2000). Gryth와 Fincham (1990)이 제안한 인지-맥락적 모델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이 부모의 갈등이라는 자극을 어떻게 인지적으로 처리하느냐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가정하였다. 즉, 부부갈등의 실제 양상보다 아동이 이를 어떻게 지각하고 평가하느냐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것이다(이민식과 오경자, 2000).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과정에서 아동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처방식이 아동의 적응을 대변해주는 변인으로 정의되고 있다. 아동은 갈등이 왜 발생했는지, 그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를 평가하고, 잠재적인 대처 행동의 효율성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O'Brien, Bahadur, Gee, Balto, & Erber, 1997). 여기서 대처행동이란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으로 스트레스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때로는 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Moos & Billing, 1982). 부부불화나 부모의 이혼을 겪더라도 아동이 효과적인 대처 행동, 높은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와 같은 긍정적 요소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Kelly & Emery, 2003).

대처효율성(coping efficacy)이란 상황의 요구와 그 상황에서 유발된 정서를 다룰 수 있는 개

인의 신념 혹은 과거에 스트레스에 잘 대처한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에 직면할 스트레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내적 신념이다(Sandler, Tein, Mehta, Wolchik & Ayers, 2000). 다시 말해, 대처효율성은 다양한 결과에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객관적 측정치라기보다 주관적 평가이다(Zautra, Reich & Nersom, 1995). 또한 사건의 원인에 대한 귀인이라기보다 스트레스의 결과를 개인이 통제할 수 있다는 신념을 의미한다(Nolen-Hoeksema, Girgus & Seligman, 1992). 아동은 스트레스 및 문제 상황과 같은 특정 사건에 접하면서 정서적인 반응을 하게 되고, 이때 스트레스에 적응하기 위해 대처효율성을 발휘하게 된다. 이를 통해 아동은 스트레스 사건에서 유발된 정서적 상태에 대한 자기 조절력, 자기 효능감을 갖게 됨으로써 특정 상황에 잘 대처하게 된다(Sandler et al, 2000). 따라서 아동의 대처효율성은 아동이 부부갈등 상황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지를 대변해 주는 변인으로서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전의 연구들은 부부갈등에 대한 아동의 대처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 먼저 갈등 환경에 노출된 아동은 스스로를 그 상황에 연관시키거나 거리를 두게 된다. 가족체계 이론에서 부부관계와 아동 사이의 분명한 경계는 아동이 건강하게 적응하게 함으로 갈등에 연루되지 않게 한다(Minuchin, Rosman, & Baker, 1978). 반면에 부부갈등에 연루된 아이들은 통제하기 어려운 스트레스 상황에 노출되어 대처 노력은 통제 밖에 있게 된다. 즉, 부모의 관계에 정확한 경계를 가지고 자신의 통제력을 가진 아동은 부부갈등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는 효율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부부 갈등에 대한 아동의 내적

통제 신념은 아동으로 하여금 심리적인 안정감을 유지하도록 하고, 자신이 부모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여 부적응을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Compas, 1987). 또한 대처 효율성에 대한 신념이 강한 아동은 스트레스에 대한 부정적인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줄인다(Thompson, 1981). 높은 대처효율성은 아동의 심리적 문제와 부적 상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Cowen et al, Work, Hightower, Wyman, Parder, & Lotyczewski, 1991; Thurber & Weisz, 1997; Nicolotti, El-Sheikh, & Whitson, 2003). 부모의 이혼에 대한 아동의 대처와 심리적 문제에 관한 연구에서 또한 아동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했을 때 아동의 심리적인 문제가 적게 나타났다(Sandler et al, 2000). Ayers와 Sandler 및 Twohey(1998)는 이혼한 부부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스트레스 상황을 겪은 아동이 지각된 조절감을 갖는 것이 적극적인 대처 전략을 사용한 것이고, 조절감을 갖는 아동은 적응하는 데 유리하다고 하였다. 아동의 효율적인 대처가 스트레스에 대한 지각을 감소시키며, 부부갈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한 아동이 일상적인 스트레스 대처에서도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많이 선택한다(정소영, 2000).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대처효율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말해준다. 그러나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매개하거나 조절하는 변인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아동이 주변 환경에 대해 조절감을 갖으며 효율적인 대처활동을 하는 것에 관련된 연구는 다소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처효율성이 부부갈등 상황으로부터 아동

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아동의 문제행동 발생을 억제하는 조절 변인으로 작용할 것을 예측하고자 한다.

생후 6개월부터 청소년 말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의 갈등으로 인해 분노나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데(Shred, Mcdonnell, Church & Rowen, 1991) 후기 아동기부터 초기 청소년기와 같은 자녀 양육 시기에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Anderson, Russel & Shumm, 1983). 특히,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삼은 아동기 후기는 가족 안에서 안심감을 가지는 아동기에서 독립적인 성인으로 새로운 지위를 발달시켜야 하는 과업에 직면해야 하는 청소년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라 할 수 있다(Wenar & Kerig, 1994). 이 시기는 문제 행동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시기로 우울, 불안 등의 내면화 문제가 급격히 상승하며(Lewinsohn, Clarke, Seeley, & Rohde, 1994) 반항, 불복종, 공격성, 권위갈등이 증가하는 시기이다(Loeber, Green, Lahey, Christ, & Frick, 199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부부갈등이 이들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며 특히 조절변수로서 대처효율성의 기능여부를 확인해 보려한다.

방 법

참가자

서울과 경기 소재 초등학교 5, 6학년 남녀 아동 39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남자 210명(53.7%), 여자 181명(46.3%)이며, 학년별로는 5

학년이 177명(45.3%), 6학년이 214명(54.7%)이다.

측정도구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 Gryth, Fincham, & Seids(1992)의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s (CPIC)을 권영옥과 이정석(1997)이 국내에서 번안하여 타당화한 것을 사용하였다. Gryth 등(1992)의 척도는 9개 하위척도, 총 5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하위척도 측정치에 대해 요인 분석한 결과 갈등의 특성, 자기 비난(자책), 지각된 위협 등 3개의 요인구조를 나타냈다. 요인 1인 갈등의 특성은 부부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인 2의 자기 비난은 부부갈등의 내용이 아동 자신과 관련된 것인지 혹은 관련이 없는 것인지를 나타내는 내용차원과 자기비난차원을 포함하고 있다. 요인 3은 지각된 위협으로 부부갈등으로 인해 자녀가 느끼게 되는 위협차원, 갈등에 대한 효율성 차원, 부모사이에서 갖게 되는 곤란한 느낌에 관한 삼각관계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영옥과 이정석(1997)의 연구에서는 내적합치도 산출과정에서 3개의 문항이 제외되고 총 9개 하위척도 48 문항이 채택되었다. 각 문항은 3점 척도로서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아니다의 3점 척도로 평가한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부부간의 갈등이 심각함을 반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민식(1999)이 사용한 '부부갈등의 특성'요인에 해당되는 19개 문항만을 사용하였다. 이는 갈등의 빈도, 강도, 해결 등 갈등의 특성요인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특히 유해한 측면들이라는 선행연구 결과들에 근거한 것이다(Cummings & Cummings, 1988; Gryth et al,

1992). 본 연구에서 산출된 전체 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85이다.

대처효율성. 아동의 대처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Gryth 등(1992)이 개발한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의 대처효율성 차원을 사용하였다. CPIC의 대처효율성 차원은 "나는 우리 부모님이 다투실 때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나는 부모님이 다투실 때 그만두시도록 할 수가 없다." 등의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3점 척도로서 그렇다, 약간 그렇다, 아니다로 구성되어 있으며, 역채점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대처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66이다.

자기행동평가척도. 아동, 청소년의 문제행동 관련하여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Achenbach (1991)가 개발한 자기보고식 문제행동 척도인 Youth Self Report(YSR)를 오경자와 하은혜와 이해련 및 홍강의(1991)가 국내에서 번안하여 표준화한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orean Youth Self Report: K-YSR)를 사용하였다. 이는 문제행동에 대해 11세에서 18세까지의 아동, 청소년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내면화 문제행동척도와 외현화 문제행동척도를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 총문제행동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alpha)는 .91이며, 내면화문제행동은 .88, 외현화 문제행동은 .83으로 나타났다.

절차

조사대상자들은 Gryth와 Fincham(1992)의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척도(The Children’s Perception of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PIC)’를 권영옥과 이정석(1997)이 한국판으로 표준화한 것과 CPIC의 하위척도인 ‘대처효율성 척도’, 그리고 Achenbach (1991)의 ‘아동, 청소년 자기보고식 문제행동척도(Youth Self Report : YSR)’을 오경자 등(1991)이 번안하여 표준화한 K-YSR로 구성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각 반 담임교사의 협조하에 실시하였다. 검사 시간은 20분~30분 정도 소요되었다. 이렇게 수집한 자료들을 SPSS 10.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상관분석, 중다 회귀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먼저 부부갈등, 대처효율성, 문제행동 척도들 간의 상관을 구하였다. 다음으로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예언 변인이 되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정도와 대처효율성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얼마나 예측하는지, 이와 함께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부부갈등, 대처효율성, 문제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내면화 문제행동, 외면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간의 부적 상관은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대처효율성이 낮음을 보여준다. 또한 부부갈등과 내면화 문제행동, 외면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 간의 높은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아동이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대처효율성 조절효과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해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 회귀분석하였다. 먼저, 부부갈등, 대처효율성, 그리고 이 두 변인의 상호작용을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언변인으로 하여 위계적으로 회귀분석하였다.

표 1. 변인들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변인들	M	(SD)	1	2	3	4	5
1. 부부갈등	9.19	(5.889)					
2. 대처효율성	4.52	(2.640)	-.373**				
3. 내면화문제	9.73	(7.751)	.455**	-.423**			
4. 외면화문제	7.81	(5.562)	.404**	-.328**	.577**		
5. 총문제행동	17.54	(11.863)	.487**	-.430**	.924**	.846**	

* p <.05 ** p <.01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표본에서 내면화 문제행동에 대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간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관계없이 주효과는 유의하였다.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에서는 성별차이가 드러났다. 즉, 여아들에게서 주 효과, 상호작용 효과가 모두 유의한 반면, 남아들에게서는 상호작용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모두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해 주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상호작용 효과는 여아에게서만 유의하였다(표 3).

따라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여아의 대처효율성이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표 4의 총 문제

표 2. 내면화 문제행동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구분		β	R	R ²	변화량 (ΔR^2)
전체	부부갈등(A)	.455	.455	.207	.207***
	대처효율성(B)	-.294	.531	.281	.074***
	A×B	.372	.544	.296	.015**
남아	부부갈등(A)	.443	.443	.196	.196**
	대처효율성(B)	-.328	.538	.289	.093***
	A×B	.129	.539	.291	.002
여아	부부갈등(A)	.469	.469	.220	.220***
	대처효율성(B)	-.272	.532	.283	.063***
	A×B	.627	.571	.326	.043**

* p <.05 ** p <.01 *** p <.001

표 3. 외현화 문제행동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구분		β	R	R ²	변화량 (ΔR^2)
전체	부부갈등(A)	.404	.404	.163	.163***
	대처효율성(B)	-.206	.447	.199	.036***
	A×B	.276	.456	.208	.008*
남아	부부갈등(A)	.347	.347	.120	.120***
	대처효율성(B)	-.210	.398	.158	.038**
	A×B	.078	.399	.159	.001
여아	부부갈등(A)	.467	.467	.218	.218***
	대처효율성(B)	-.199	.501	.251	.033**
	A×B	.478	.526	.276	.025*

* p <.05 ** p <.01 *** p <.001

행동에서도 여아의 경우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의 주효과, 상호작용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에서는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가 있지만, 남아에게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상호작용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 및 대

처효율성 수준에 있어서의 상위 1/3집단과 하위 1/3 집단의 문제행동에서의 평균값을 비교하였다. 그림 1은 여아의 내면화, 외현화, 총 문제행동에서의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간의 상호작용 형태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따라서 여아의 경우, 부부갈등을 적게 지각하고 대처효율성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을 적게 보이는 경향이 있고,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하고 대처효율성이 낮을수록 문제행동을 많이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총 문제행동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

구분		β	R	R ²	변화량 (ΔR^2)
전체	부부갈등(A)	.487	.487	.237	.237***
	대처효율성(B)	-.289	.555	.308	.072***
	A×B	.372	.568	.323	.015**
남아	부부갈등(A)	.462	.462	.213	.213***
	대처효율성(B)	-.320	.549	.301	.088***
	A×B	.123	.551	.303	.002
여아	부부갈등(A)	.515	.515	.265	.265***
	대처효율성(B)	-.265	.570	.325	.060***
	A×B	.621	.606	.367	.042**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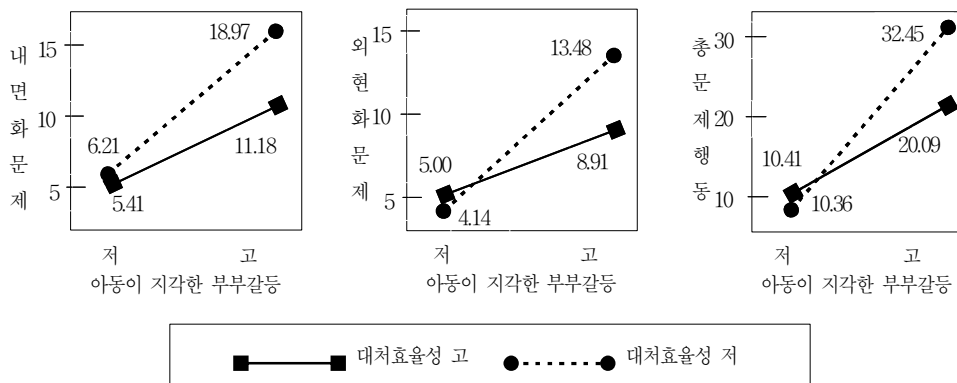


그림 1. 여아의 내면화, 외현화 및 총 문제행동에서의 부부갈등과 대처효율성 간의 상호작용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아동의 대처효율성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각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검증하였고, 다음으로 부부갈등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행동을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부부갈등,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 총 문제행동 간의 정적 상관이 남, 여 모두에게서 나타났고 대처효율성과는 부적상관이 나타났다. 즉, 성별에 관계없이 아동은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대처효율성이 낮은 경향이 있으며,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 이는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이 높을수록 문제행동이 많이 나타난다는 것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Gryth, Fincham, Jouriles & McDonald, 2000). 또한 부부갈등을 많이 지각할수록 대처효율성이 낮다는 결과는 정서안정감 가설(Davies & Cummings, 1994)을 지지하는 것이다. 아동은 부부갈등 상황에서 갈등을 목격하면서 인식하게 되고 이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 경험을 하게 되어 적응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부모가 갈등을 많이 보이면 상대적으로 아동은 효과적인 갈등 대처 방법을 배울 기회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대처기술 중에서 더 효과적이지 못한 것을 사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부부갈등은 아동의 정서발달과 대처방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부부갈등이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결과, 내면화, 외현화 문제 모두 여아에게서만 조절효과를 보였다. 즉, 여아의 경우 부모의 갈등에 대한 지각 정

도가 높더라도 대처효율성이 높을 경우 문제행동의 발생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여 대처효율성이 조절변수로 기능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 이러한 양상이 나타나지 않은 바, 남아에게는 부모의 갈등정도를 지각하는 양상과 문제 행동 사이에 다른 변인이 관여할 가능성이 시사된다. 따라서 이러한 성차는 부부갈등이 스트레스가 되는 가정에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기 위한 개입 방안을 고안할 때 성별을 고려해야 함이 드러났다. 성별차이는 대체로 여아가 또래의 남아보다는 언어능력이나 사회적 능력이 성숙하므로 여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대처기술을 발달시켜 사용하는 반면, 남아는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숙하므로 대처기술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Michel, 1994; Ford, 1982; 도현심, 1994, 고정환, 2002; 신현숙과 구분용, 2001에서 재인용) 결과라 추정된다.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효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연구 결과(손무경, 2004)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남아가 부부갈등에 취약하다는 가설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는데, Harold와 Conger(1997)는 부부간 적대감이 남아와 여아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연관되는 반면, 외현화 문제행동은 단지 남아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아는 발달적 위험요소의 영향에 더욱 취약하며, 스트레스에 더 많이 반응하며, 여아보다 부부갈등을 더 많이 관찰한다 (Cummings, Davies, & Simpson, 1994). 이러한 남녀 간의 차이는 부부불화가 있는 가정의 아동이 이를 지각하고 적응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보호요인인 대처효율성을 발휘하는 데에 있어 여아가 상대적으로 유리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갈등에 의해 아동의 문제행동이 영향을 받는 정도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문제 유형의 차이라는 연구(Gryth et al, 2000)와 대처 행동 또한 성별의 차이가 아니라 어떠한 대처를 하느냐에 따른 것이라는 연구 결과(박수영, 1998)가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남녀의 부부갈등에 대한 반응, 대처행동에 대한 통합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부부갈등이 있는 가정에서 아동이 부부갈등을 지각하는 정도에 따라 문제행동의 발현을 예측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대처효율성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부분적으로 대처효율성의 조절 효과가 관찰되는 바, 아동의 문제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대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개입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부부불화가 심하고 갈등이 있는 가정환경에 노출된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위하여 무엇보다 부부갈등을 줄이거나 없앨 뿐만 아니라 아동 스스로 대처효율성과 같은 보호요인을 가질 수 있도록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갈등과 같은 환경적인 스트레스가 아동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으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갈등 대처 기술이나 대처방식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이다. 즉, 부부갈등 맥락에서 아동의 대처효율성은 적응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갈등 상황에서 스스로 대처를 잘 한다고 느끼는 아동은 결국 통제감을 갖는 것이다. 이러한 아동의 내적 통제 신념은 심리적 안정감을 유지하게 하고 부모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한다. 따라서 아동의 대처효율성을 증진시켜 주는 일은 아동이 부부불화, 갈등과 같은 가족 내

스트레스 상황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서 아동의 문제행동을 줄이는 데 중요하다. 따라서 아동의 대처효율성을 개발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을 아동이 지각한 것으로 하였는데, 이는 아동의 주관적인 보고에 의존한 것으로 부부갈등에 대한 부모의 보고와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부부갈등을 아동의 보고뿐 아니라 부모의 보고까지 고려하여 이 둘의 차이점 및 관계를 밝히고, 부부갈등에 대한 다양한 평가를 종합하여 부부갈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아동의 문제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K-YSR)를 사용하였는데, 하은혜와 이수정과 오경자 및 홍강의(1998)는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과 부모평가 간의 관계를 비교하기 위해 한국판 아동청소년행동평가척도(K-CBCL)와 K-YSR 간의 하위요인 구조 비교를 하였다. 이에 두 척도의 공통되는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요인구조 자체는 비교적 유사하지만 그 중요도에 있어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부모가 자녀를 평가한 K-CBCL의 경우 비행, 공격성과 같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외현화 문제가 일차적으로 중요하게 부각된 반면, K-YSR에서는 우울, 불안, 위축 등의 내면화 문제가 가장 변별력 있게 지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보고와 부모의 보고에서의 차이를 말해주는 것으로 후속연구에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부부갈등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성별의 차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부부갈등에 의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받는 정도는 아동

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다만 아동의 성별에 따라 나타나는 문제유형에 차이가 있다는 연구가 있다(Gryth & Fincham, 1990; 조윤녕, 2002 재인용). 부부불화가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성별 차이를 연구한 Purcell과 Koslow (1994)는 일반가정에서는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임상집단에서 부부불화에 노출된 남아가 여아보다 더 심각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갈등과 아동 문제행동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의 문제유형과 성별간의 관계에 대해 여전히 불일치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Zimet & Jacob, 2001). 또한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성차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적 근거가 불충분한 실정이다(Harold, Fincham, Osborne & Conger, 1997). 넷째, 본 연구에서는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잠재적인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부모의 정신건강 상태는 직, 간접적으로 아동의 정서, 행동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그 중 어머니 우울은 부모-자녀 상호작용의 질과 양육방식을 변화시키고, 부부간의 불화를 증가시켜 아동에게 영향을 미친다(남소현, 김영희, 2000; Davies & Cummings, 1994; Downey & Coyne, 1990; 현명호, 최문선, 2002에서 재인용). 또한 가정의 환경적 요인 혹은 가정내 스트레스 요인도 아동의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제적 어려움이 크고 낮은 사회계층에 가정과 같이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가정은 직접적으로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아동의 행동문제에도 영향을 준다(Elder & Caspi, 1988). 따라서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동이 주어진 환경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개입하는 데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권영옥, 이정덕 (1997). 자녀가 지각한 부부갈등 척도(CPIC)의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18(1), 65-80.
- 박수잔 (1997). 부모간의 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무경 (2004). PITR을 통한 초등학생의 스트레스와 대처행동 측정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대학원 교육학과 박사학위논문.
- 송은하 (2004). 부부갈등이 아동의 심리적 적응문제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인지-맥락적 평가와 정서적 안정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현숙, 구분용 (2001).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 적응과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9(1), 189-225.
-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1991). K-YSR 청소년 자기행동평가척도,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우진영 (1998). 아동의 심리적 적응과 부부갈등, 부모-자녀 관계 사이의 관련성.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민식 (1999).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민식, 오경자 (2000). 부부갈등이 아동의 내면화 및 외현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아동의 지각된 부부갈등과 양육태도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4), 727-745.

- 정소영 (2000). 아동이 지각한 부부갈등과 부모관련 스트레스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 서강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윤녕 (2002). 아동이 지각한 부모갈등과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내면화, 외현화 증상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은혜, 이수정, 오경자, 홍강의 (1998). 문제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신과 부모 평가간의 관계 : K-CBCL과 YSR의 하위요인 구조 비교. *소아·청소년정신의학*, 9(1), 3-12.
- 현명호, 최문선 (2002). 부부갈등이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제15집*.
-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Youth Self-Report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 Anderson, S. A., Russell, C. S., & Schumm, W. R., (1983). Received marital quality and family life-cycle category: A further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27-139.
- Ayers, T. S., Sandler, I. N., & Twohey, H. (1998). Conceptualization and measurement of coping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dvances in Clinical Child Psychology*, 20, 243-301, New York : Plenum Press.
- Compas, B. E., (1987). Coping with stress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Psychological Bulletin*, 101(3), 393-403.
- Cowen, E. L., Work, W. C., Hightower, A. D., Wyman, P. A., Parker, G. R., & Lotyczewski, B. S., (1991). Toward the development of measure of perceived self-efficacy in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0, 169-178.
- Cummings, E. M., Ballard, M., El-Sheikh, M., & Lake, M. (1991). Resolution and children's responses to interadult ang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 462-470.
- Cummings, E. M., Cummings, J. S. (1988). A process-oriented approach to children's coping with adults' angry behavior. *Developmental Review*, 8, 296-321.
- Cummings, E. M., & Davies, P. T.,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Cummings, E. M., Davies, P., & Simpson, K. (1994). Marital conflict, gender, and children's appraisals and coping efficacy as mediators of child adjustment.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8, 141-149.
- Davies, P., & Cummings, E. (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lder, G. H.,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 44, 25-46.
- Emery, R. (1982). Interparental conflict and the children of discord and divorce. *Psychological Bulletin*, 92, 310-330.
- Emery, R. E., & O'Leary, K. D. (1982). Children's perceptions of marital discord and behavior problems of boys and girl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0, 11-24.
- Emery, R. E., & O'Leary, K. D. (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 411-420.
- Fauber, R., Forehand, R., Thomas, A., & Wierson, M. (1990). A mediational model of the impact of marital conflict on adolescent adjustment in intact and divorced families: The role of disrupted parenting. *Child Development*, 61, 1112-1123.

- Fauber, R. L., & Long, N. (1991). Children in context : The role of the family in child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9*, 813-820.
- Gryth, J., Fincham, F. (1990). Marital conflict and children's adjustment: A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Psychological Bulletin, 108*, 267-290.
- Gryth, J., Fincham, F., Jouriles, E., & McDonald, R., (2000). Interparen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 testing the mediation role of appraisals in the cognitive-contextual framework. *Child Development, 71(6)*, 1648-1661.
- Gryth, J., Fincham, F. & Seids, M. (1992). Assessing marital conflict from the child's perspective: The Children's Perception on Interparental Conflict Scale. *Child Development, 63*, 558-572.
- Harold, G. T., & Conger, R. D. (1997).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distress: The role of adolescent awareness. *Child Development, 68*, 558-572.
- Harold, G. T., Fincham, R. D., Osborne, L. N., & Conger, R. D. (1997). Mom and dad are as it again: Adolescent perceptions of marital conflict and adolescent psychological distr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333-350.
- Jenkins, J. M., & Buccioli, J. M. (2000). Children's understanding of marital conflict and the marital relationship. *Journal of Child Psychology, 41(2)*. 161-168.
- Kelly, H. B., & Emery, R. E. (2003). Children's adjustment following divorce: Risk and Resilience Perspectives. *Family Relations, 52*, 352-362.
- Lewinsohn, P. M., Clarke, G. N., Seeley, J. R., & Rohde, P. (1994). Major depression in community adolescents: Age at onset, episode duration, and time to recurrenc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22*, 809-818.
- Loeber, R., Green, S. M., Lahey, B. B., Christ, M. A., & Frick, P. J. (1992). Developmental sequences in the age onset of disruptive child behavio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 21-41.
- Long, N., Forehand, R., Fauber, R., & Brody, G. (1987). Self-perceived and independently observed competence of young adolescents as a function of parental marital conflict and recent divor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15-27.
- Long, N., Slater, E., Forehand, R., & Fauber, R. (1988). Continued high or reduced interparental conflict following divorce : Relation to young adolesc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467-469.
- Minuchin, S., Rosman, B. L., & Baker, L. (1978). *Psychosomatic families : anorexia nervosa in contex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oos, R. H., & Billing, A. G. (1982).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ping resources and process. In L. Coldberger & S. Breznitz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212-230. New York: Free Press
- Nicolotti, L., El-Dheikh, M, Whitson, S. (2003). Children's coping with marital conflict and their adjustment and physical health: vulnerability and protective function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7(3)*. 315-326.
- Nolen-Hoeksema, S., Girgus, J. S., & Seligman, M. E. (1992). Predictors and consequences of childhood depressive symptoms: A 5-year

-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1, 405-422.
- O'Brien, M., Bahadur, M. A., Gee, C., Balto, K., & Erber, S. (1997). Child Exposure to Marital Conflict and Child Coping Responses as Predictors of Child Adjustment. *Cognitive Therapy and Research*, 21, 39-59.
- O'Brien, M., Margolin, G., & John, R. S. (1995). Relation among marital conflict, child coping, and child adjustment.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4, 346-361.
- Purcell, D. W., & Kaslow, N. J. (1994). Marital discord in intact families: sex differences in child adjustment.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22(4), 356-370.
- Richman, N., Streavenson, J., & Graham, P. J. (1982). Pre-school to School. *A behavioral Study*. London : Academy Press.
- Rutter, M., Yule, B., Quinton, D., Rowlands, Yule, W., & Berger, M. (1975). Attainment and Adjustment in two geographical area.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26, 520-533.
- Sandler, I. N., Tein, J., Mehta, P., Wolchik, S., & Ayers, T., (2000). Coping Efficacy and Psychological Problems of Children of Divorce. *Child Development*, 71(4), 1099-1118.
- Shred, R., McDonnell, P. M., Church, G., & Rowan, J. (1991). *Infants cognition and emotional responses to adult's angry behavior*. Post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Child Development. Seattle. WA.
- Straus, M. A., Gelles, R. J., & Steinmetz, S. (1980). *Behind closed doors: Violence in the American family*. Garden City, NY: Anchor.
- Thompson, S. C. (1981). Will it hurtless if I can control it? A complex answer to a simple question. *Psychological Bulletin*, 90, 889-901.
- Turner, C. A., & Weisz, J. R. (1997). "You can try or you can just give up." : The impact of perceived control and coping style on childhood homesickness. *Developmental Psychology*, 33, 508-517.
- Vincent, J. P., Harris, F. E., & Plog, A. (1991). Divorce and children's adjustment: The role of interparental conflict, maternal affect and parenting. In J. Vincent(Ed.), *Advances in family intervention assessment and theory*(vol. 5, 47-68). London: Jessica Kingsley.
- Wenar, C., Kerig. P. (1994).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3/e.
- Zautra, A. J., Reich, J. W., & Newsom, J. T. (1991). Coping success and its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distress for older adul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801-810.
- Zimet, D. M. & Jacob T. (2001). Influence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 Adjustment: Review of Theory and Research. *Clinical Child and Family Psychology Review*, 4(4), 319-335.

원고접수일: 2007년 11월 11일

수정원고접수일: 2008년 1월 5일

게재결정일: 2008년 1월 21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2008. Vol. 13, No. 1, 169 - 183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Conflicts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 focusing on moderating the effect of coping efficacy

Soo-Jin Lim Seung-Mi Choi
Paik Hospital

Paul Chae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parents' marital conflicts on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with a particular emphasis on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efficacy. The subjects for this study were 391 students (210 boys and 181 girls) in the fifth and sixth grad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among th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marital conflict and negative correlations with coping efficacy. The children who experienced more of their parents' marital conflicts also utilized less efficient coping skills. Second, in the case of girls, the coping efficacy functioned as a buffering variable for children who experienced their parents' marital conflicts. It reduced the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However, the moderating effects of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were demonstrated only by the girls, not boys. The aims of this study were to predict children's behavioral problem by perception of parents' marital conflicts and to examine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efficacy. Partly, the moderating effect of coping efficacy were showed, improvement of coping efficacy will be effective intervention strategy for children to reduce behavioral problem and to grow to the fitness.

Keywords : *parents' marital conflicts, children's behavioral problem, coping efficacy, moderating effect*